

◇ 심실-폐동맥 연결에 사용된 인공판막 도관의 비교

이택연, 이창하, 전홍주, 김수철, 김웅한, 정철현, 이영탁, 박영관, 김종환,
홍승록

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선천성 심장병에 있어서 폐동맥하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연결이 없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심장의 도관 중 인공판막이 사용된 도관들의 수술 성적을 비교 하였다.

방법 : 1991년 1 월 부터 1998 년 7 월 까지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환자 중 폐동맥하심실 과 폐동맥 사이 연결을 위해 인공판막이 있는 도관을 사용한 1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들을 세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는데 제 I 군은 Homograft conduit [n=12], 제 II 군은 Hand-made conduit [n=49], 제 III 군은 Artificial valved conduit [n=46] 을 이용 한 군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관찰하여 수술사망율 및 중재적 치료, 재수술, 심초음파 결과 등을 비교하였다.

결과 :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.1 ± 2.3 년 이었고, 그 중 조기 사망률은 16%였으며 추적 기간 중 4%의 만기 사망률이 있었다. 각각의 군에서 보면 조기사망율은 I, II, III 군에서 각각 18%, 33%, 4%였으며, 추적관찰 도중 발생한 폐동맥 협착으로 풍선 혈관 도관술을 시행한 예는 I, II, III 군에서 각각 1례, 2례, 4례 있었으며, 재수술후 다른 도관으로 대치 한 경우는 I, II, III 군에서 각각 1례, 12례, 5례 있었다.

결론 : 폐동맥하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인공판막이 있는 도관을 써서 수술한 환자들은 만족 할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Artificial valved conduit을 사용한 군이 내구성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 Homograft conduit이나 Hand-made conduit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책임 저자: 이택연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이택연(부천세종병원 흉부외과)